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 끝 보인다

'우병우' 영장 청구 여부 결정 → '박 전 대통령' 기소, '최태원·신동빈' 처리 결정 후 수사 마무리

약 6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의 마무리 윤곽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마지막 타격'이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를 마치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7일 소환되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법 처리는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전후해 일괄 결정될 게 유력하다.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이전에 주요 인물 기소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전면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막

을 내리려고, 이후 전장은 법원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우선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상황에서 다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의 표정은 매우 침울했다.

다음은 신 회장이자. 신 회장은 7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 받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조사를 마친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21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대부분의 정권실세들이 구속된 상황이다. 게다가 검찰은 우 전 수석 추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수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 뇌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아온 만큼 수사 의지와 자신감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주를 전후로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적용했던 최순실씨 혐의 변경도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직권남용죄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이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면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대기업 회장 신병철씨 여부를 결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중요한 피의자는 이제 우 전 수석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며 "여지껏 그를 지켜왔던 권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기밀 곳이 없어 보인다. 아직 법적 논리 싸움이 남아있지만 당사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대선주권자행동, "관련선거 막겠다"

시민단체가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과거 발생했던 관련 선거 개입 방식을 위해 경고문 및 감독촉구서 발송, 시민제보 온라인 창구 운영 등의 행동에 나섰다.

2017대선주권자공동행동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과거처럼 국정원 개입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불법개입 전력이 있는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정치중립 의무를 깨뜨리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형 관변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집중 감시 및 경고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선주권자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유총연맹 측에 경고문을 직접 전달했으며 나머지 기관에는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전국 각 검찰, 지역 경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법에 따라서 5개 기관의 선거개입, 정치활동 여부를 감독해달라는 감독촉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창구를 통해 기관들의 불법활동 사례 및 의심사례를 신고받고 필요한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선주권자공동행동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거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관련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문재인 "적폐세력이 지지 정권교체 말할 수 있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자신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적폐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과연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의문스럽다. 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하지 않냐"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는 더 좋은 정권교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촛불집회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는 저하고 토론을 말하기 전에,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준비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먼저 준비된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규정했다.

문 전 대표는 안 후보의 지지를 상상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만 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문재인, 목포 신항만 방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6일 반잠수선에 실린 세월호가 접안해 있는 목포 신항만을 방문,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이철주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안철수 "사드 당론, 찬성으로 바꿀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6일 후보와 당의 사드배치 관련 입장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제 생각대로 설득하고 당과 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당론변경을 공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젠 대선 기간이다.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가 당론이지만, 안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드배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배치에 관해) 공동 발표를 했다. 그 시기를 전후해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이행)된 것이고 그러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한국 안보에서 미국이 중요하나, 중국이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미국이 중요하다. 미국과는 동맹관계가 아니냐'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과는 동맹관계고, 동맹 관계 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그 관계 단계 관계들을 계속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안철수 후보 참여 행사에 조직폭력배 참석 의혹

국민의당 안철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참석한 행사에 조직폭력배가 참석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민의당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주에서 열린 '청년의 숲' 포럼에 안 후보가 참석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과 간담회와 질의 응답 시간 등을 가졌고, 참석한 청년들과 사진도 촬영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후보와 사진을 함께 촬영한 청년 중 일부가 조직폭력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속 조직폭력배라고 지목된 일부 남성들은 전주의 한 유명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사실관계 확

인중에 있지만, (우리가)조직폭력배 동원한 것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안 후보가 본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청년 일부가 조직폭력배인지 알 리가 없다"라며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직폭력배가 참석한 것을 알았다면 포럼에 참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와 사진 촬영한 청년 일부가 조직폭력배" 주장 제기

이와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보단장인 박광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철수 후보는 '차떼기' 동원의 실상을 밝히라"며 "조직폭력배도 손잡는 게 안 후보의 미래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 조직폭력배의 관련 의혹 제기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뉴스

문재인, 安·李·崔와 "정권교체 힘 모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는 8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과 회동을 가진다.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6일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 측 캠프 비서실에서 안희정, 이재명, 최성에 토요일 저녁 시간을 같이 했을 좋겠다고 전했다"며 "세 후보도 일정이 있었지만 조정해서 이날 보자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도 "문 후보가 직접 전달 오후 안희정, 이재명, 최성 측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 후보 모두 수락해 오는 8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정권교체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런 선언을 직접 만나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뉴스